

4월의 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3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성회 안내 -

2013년 4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원당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복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문경섭 안희순 오현주 이규현 이형춘 정경자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Beverly Hughes Esther Han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항상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샬러리맨의 이상으로 통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단사원으로 출발해서 미국의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그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지쳐서 스트레스에 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그에게 휴스턴 제일감리교회의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는 스케줄을 잡은 후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가서 알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그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다섯 번씩 읽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20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다섯 번씩 시편을 읽었는데 20일이 채 가기도 전에 열흘 만에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임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나아지는 성공적인 꿈을 꾸시고 변화를 받아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늘 꿈꾸십시오. 건강해지고 잘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 받게 되고 남에게 도와줄지라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청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사진 찍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슴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동북 치유대성회

고통 속 동일본,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DCEM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동북 치유대성회’가 지난 6일 일본 센다이국제센터에서 개최됐다.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앞두고 DCEM이 주관하고 일본순복음교단이 주최한 이번 성회는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일본인들의 회복을 위해 ‘주께 돌아오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일본 전역의 순복음선교사들과 우리교회 선교위원회, 제자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일본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부흥을 눈물로 부르짖었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기도회에서 2부 주강사로 나선 조용기 목사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하나님’을 강조했다.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과 긍정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앙고백을 강조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어두운 곳에 빛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한 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어 “우리는 좋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마음에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끝으로 ‘병고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회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설교 후 간증이 이어졌다.

오전에 진행된 1부 기도회에서는 쓰나미 피

해지역 목회자인 오토모 유키가즈 목사와 방사능 피해 지역 목회자인 스미요시 에이치 목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성회 주제는 ‘일본 지원’이 아니라 ‘일본이 주님께 돌아오자’”라며 “일본 교회가 오늘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순복음노원교회와 센다이순복음교회 연합 찬양, 광주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와 순복음비전 국악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이어져 성회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현재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폐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어려운 일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동북 치유대성회’는 새로운 일본 동북지역을 희망하고 일본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대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 강을 건너라’

“은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 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야훼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3~17절>

2. 믿음으로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말한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거리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걸머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아무리 강이 넓고 깊어도 하늘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 언약궤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떠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세상적인 감각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 새 마음과 초자연적 삶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꿈과 믿음을 얻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삶이 초자연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나라에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

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면 하늘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애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 요단 강이 갈라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다는 것은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은 “야훼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죽음의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와 질병, 죽음까지도 청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의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물고기를 가져다주면 먹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자기 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자꾸 나눠만 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궤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언약궤를 걸머지게 하면 저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삶의 복을 가로막는 강들이 갈라집니다. 어느 곳에서나 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같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갈라질까요? 이스라엘 종교와 예배의 중심이요, 통치의 중심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 언약궤를 짊어진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짊어진 민족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의 기록물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며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타민족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하나님과의 약속의 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이 언약궤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언약궤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맺은 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악과 허물을 씻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궤인 십자가를 걸머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본 대지진 아픔, 복음만이 치유 가능”

조용기목사 등 방문단 日 아라하마서 기도회



한때 1만여명의 주민이 살았던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의 작은 어촌도시 아라하마는 여전히 폐허 상태였다. 흔적만 남은 집터에는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남긴 노란 리본만 펄럭이고 있었다. 3층까지 물에 잠겼던 아라하마 초등학교는 잔해더미가 널린 가운데 인적 없이 방치돼 있었다.

조용기 DCEM 총재목사와 제자교회 목사들, 순복음광주, 순복음송파, 순복음강남, 순복음도봉교회 성도 등 100여 명의 한국교회 방문단은 지난 3월 5일 아라하마시 후카누마 해변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합심기도를 드렸다. 방문단은 지난 6일 센다이 국제센터에서 열리는 ‘2013년 주께 돌아오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일본에 입국했다.

기도를 드린 해변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진도 8.9의 강진과 그에 이은 10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휴먼지와 건물잔해만 나뒹구는 황량한 곳으로 변했다.

조목사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복구 노력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야기선교네트워크 대표인 오토모 유키가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내준 한국 교회에 감사드린다”며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열심으로 기도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순복음원당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순복음원당교회(담임 고경환 목사)는 지난 3월 15일 DCEM 헌신예배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시편 23편 1절~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하며, 목적지를 정했더라도 지도를 갖고 있어야 정확

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전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야훼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닛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야훼 살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쩌두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삼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

나님, 이 일곱 가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인생에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였다. 순복음원당교회는 1987년 우리교회 원당성전으로 출발해 1993년 독립, 1999년부터 고정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